아주경제

민중과 군중의 '모임'...따뜻한 연대감에 대한 고찰

October 29, 2019 I 이한선 기자

민중과 군중의 '모임'… 따뜻한 연대감에 대한 고찰

'현대차 시리즈 2019 작가' 박찬경 개인전

국립현대미술관서 내년 2월23일까지… 신작 8점 선보여

박찬경이 2019 국립현대미술관(MMCA) 현대차 시리즈 작가로 선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MMCA 현대차 시리즈 2019: 박찬경-모임'전을 지난 26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연다.

전시 담당인 임대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은 "박 작가의 이번 '모임'전은 민중과 군중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한다"며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전체주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가운데 특정한 목적이 없이 따뜻한 연대감에 대한 대안적인 질문을 던진다. 권위와 전문가, 관습, 제도에 대한 작은 저항을 나타내면서 상상을 통해 다시 구성하고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전시가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설치된 작품들은 박 작가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나라 미술사와 함께 미술관과 관련된 공사 영상, 굿 영상도 소개하고 있다. 전시 준비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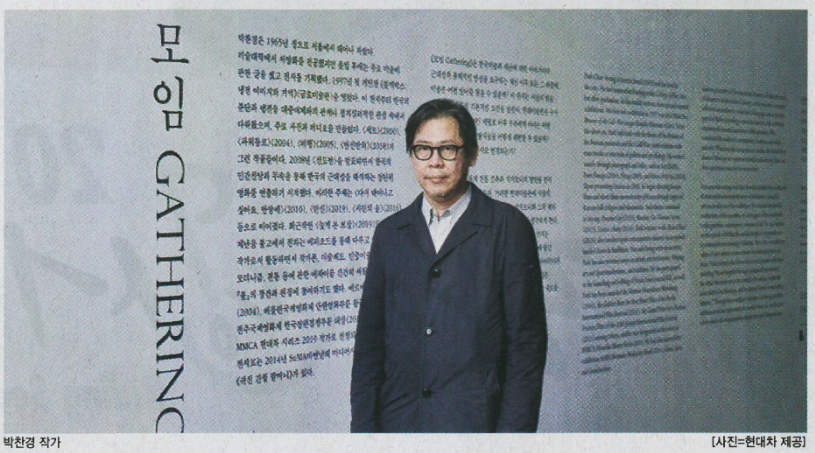
박 작가는 전시된 이유로 화백의 1982년작 '군무'와 관련해 "1980년 광주항쟁, 유럽의 68 시위 영향을 받아 그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를 수묵화로 표현한 것이 놀랍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 '늦게 온 보살'을 비롯해 '작은 미술관', '후쿠시마, 오토래디오그래피', '맨발', '5전시실' 등 총 8점의 신작과 구작 '세트' 1점을 선보였다. 전시장 입구 쪽에 설치된 '작은 미술관'은 이번 전시의 액자 역할을 한다. 작품은 미술사와 미술관이 인위적으로 주입된 틀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작가 자신의 시각으로 작품들을 배치했다. 건축가와의 협업으로 전시를 설계한 것도 특징이다. 미술제도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성찰은 '재난 이후'라는 주제 아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석가모니의 열반 등을 다룬 작품으로 이어진다.

'후쿠시마, 오토래디오그래피'는 원전사고 피폭현장인 마을을 촬영한 작가의 사진과 방사능을 가시화하는 일본 작가 가가야 마사미치의 오토래디오그래피 이미지를 소개한다. 이 작품과 '세트'(2000)를 나란히 전시해 서로 다른 소재의 유사성에 주목, 접점을 찾는 작가의 작업태도가 드러난다. 전시실 중앙에 펼쳐진 '해안'은 다양한 물질무늬를 새긴 시멘트 판, 나무마루 등으로 구성했다.

55분 분량의 영화 '늦게 온 보살'은 '석가모니의 열반'이라는 종교적 사건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룬다. 흑백 반전으로 찍은 영화 장면은 후쿠시마의 방사능 사진을 연상하게 한다. 산속을 헤매는 한 중년 여성과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하며 산을 다니는 여성을 교차시키면서 환경과 죽음 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영상으로 해석된다.

1대25 배율 축소모형 '5전시실'은 미술관의 관람 관습에 익숙해진 관객을 다시 액자 밖으로 끌어내 미술과 미술관이 같아 보이는지 묻는다. 모형의 아래에는 쇠로 만든 계단이 놓여 있다. 박 작가는 "군 정보사 건물이었던 건물의 아래에 벙커가 있었고 청와대까지 이어진다는 소문도 있어 계단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선 기자 griffin@



박찬경 작가 [사진=현대차 제공]

URL: https://www.ajunews.com/view/20191024083319149